

인쇄경기 침체에 덩달아 울상

2003년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제본기계의 지난해 대비 수출입 실적은 현저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제본기계의 수출실적은 226만4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의 255만달러에서 11.2%나 줄어들었다. 더구나 지난해 9월말, 2278만달러를 달성했던 제본기계의 수입실적은 올해 같은 기간에는 1569만3천달러에 그쳐 무려 31.1%의 감소세를 보였다.

제본기계의 수출입 실적은 국내 후가공 업계의 경기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특히 수입실적은 국내 후가공업계의 경기를 보여주는 잣대라고 할 수 있다. 제본업체에서 사용되는 절대다수의 제본기계가 수입물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입 실적에서 드러나듯 인쇄 후가공 업계는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업계 전반적으로는 중철제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더욱 힘들었던 한해로 평가된다. 중철기를 통한 설비투자가 그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업계분위기가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그만큼 올해 중철기에 대한 설비투자가 이뤄진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며 신규투자도 주로 대형 인쇄사들이 인-하우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뤄졌다.

무선철과 기타 후가공 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전문 제본업체들도 하락하는 작업단가와 장

통 작업은 줄어들고 소량 다품종의 단통 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힘겹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대형업체들은 하락하는 작업단가에 따른 손해를 중철, 무선철, 접지 등의 다양한 작업으로 상쇄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철제본을 필두로 하여 전문적으로 제본업무만 하는 후가공 업체들은 제본업무를 더욱 전문화할 것인지 아니면 접지·지기·메일 작업 등의 새로운 분야로의 사업다각화를 시도해야 할 지에 대한 고민이 가중되었던 한해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제본업체들의 자동화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전 공정의 자동화를 제어할 수 있는 CIP3에 대응하는 워크플로우의 도입도 몇몇 업체를 선두로 해,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주변장비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접지·재단기 등의 주변기기는 작업자들의 동선을 줄이고 작업을 합리화하는 인쇄공학인 설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를 높여주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접지기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압축기, 자동적재기 등은 기계의 생산속도를 높이고 품질도 향상시켜 자동화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조갑준 기자)

